

#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 세계에 나타난 영국적 이미지의 재현방식과 의미

송수원\* · 김민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본고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의미를 영국 패션이라는 국가 문화적 맥락에서 다시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오늘날 세계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런던 핑크의 창시자인 동시에 하이패션 디자이너로 변신을 거치면서 세계 패션 계에서 인정하는 영국 패션의 혁신적 정체성을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오늘날 영국 패션의 대모로 불리는 지위를 갖고 있다. 웨스트우드를 가장 영국적인 디자이너로 꼽는 것은 그녀가 성공한 영국 출신 디자이너이기 때문만은 아닌데 그것은 웨스트우드가 아방가르드 패션의 길을 추구해 온 한편, 영국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패션 이미지와 복식 요소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작품에 도입함으로써 자신의 패션이 '영국산(Made in England)'의 문화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웨스트우드의 작품 세계에 등장한 영국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패션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웨스트우드의 독창적인 재현 방식과 의미를 이해하고 이러한 작업들이 영국 패션의 정체성에 끼친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 가운데 영국적인 정체성을 지닌 것으로 주목받거나 스스로 영국인으로서의 자의식을 노출한 작품들이 선정되었다. 핑크 의상 가운데 1970년대 중반 SEX와 SEDITIONARIES에서의 작품 일부를 포함하였고 주된 연구 대상으로는 영국적인 패션 이미지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Harris Tweed(1987-8 A/W) 컬렉션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의 컬렉션들이 포함되었다.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자신의 작품 세계를 이끄는 힘에 대하여 어떤 전통(orthodox) 지향의 사고방식에 대한 심술과 지향이라는 말로 요약하였는데 이러한 패션 철학은 웨스트우드로 하여금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의식하

면서도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영국적 이미지를 추구하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웨스트우드는 수트와 버버리 코트 등 보수적인 클래식을 고수하는 영국 중류 계급의 유니폼 같은 패션 문화에 도전하고자 하였고, 영국적 패션 이미지에 담겨진 성과 젠더, 계급적 위계질서를 자신의 방식으로 전복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개성적인 영국적 이미지를 창조하였다.

핑크 시절 웨스트우드의 의상에 나타난 영국적 이미지는 유니온 잭, 여왕의 초상 등 국가적 도상들이었는데, 혐오스럽고 추하게 장식됨으로써 반 영국적인 공격성을 드러내었다. 한편 섹슈얼리티를 과도하게 드러낸 포르노적인 스타일들 또한 건전한 시민의 이미지와 공존할 수 없는 반체제적인 아웃사이더의 미학을 담아낸 것이었다. 웨스트우드는 하이패션 디자이너로 변신한 이후 이러한 반체제적 태도와 거리를 두고 영국의 전통이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몰입하였는데,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긴 영국 복식의 유산을 발굴해내는 한편, 귀족문화의 전통을 일반인의 패션 아이템으로 바꾸고 백인 앵글로색슨 남성 귀족문화의 전통을 과도한 여성성과 결합함으로써 기존 영국 패션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던 성과 계급적 위계질서를 전복하고, 국가 이미지를 자신의 개성적인 패션 스타일로 만들어 버렸다.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새로운 재현 방식은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전통적 이미지들을 패션의 재료로 끌어들이므로써 영국 내부에서는 걸끄러운 것으로 여겨졌지만, 세계 패션 계에 대해서는 남성 수트의 종주국이되 하이패션의 변두리가 된 영국 패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이었다. 영국적 정체성을 드러낸 웨스트우드의 혁신적인 이미지들은 영국 패션 디자인과 영국적 패션 이미지들을 모두 흥미로운 것으로 만드는데 기여하였고, 이제 영국 패션의 또 다른 강력한 정체성의 예로 정착되어가고 있다.